

# 나르시시즘

## Narzissmus

### 1. 어원 및 개념 정의

그리스어 Nárkissos 혹은 이탈리아어 Narcissus를 번역한 독일어 Narziss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 미소년으로 등장하는 인물 나르시스 Narziss를 가리키는 말이다. 나르시스에서 유래한 나르시시즘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 물에 빠져 죽은 나르시스(나르키소스)와 관련해 독일의 정신과 의사 P. 네케가 만든 용어다.



<카라바조의 그림 나르시스>

정신분석학에서 자기에(自己愛)를 뜻하는 나르시시즘은 일반적으로 자기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개념이다. 의학적으로는 성도착(性倒錯)의 하나로 자기 육체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현상을 말하기도 한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는 이 용어를 정신분석학 개념으로 확립하여 리비도가 자기 자신에게 향해진 상태, 즉 자기 자신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규정한다. 프로이트는 또한 나르시시즘을 나와 남을 구별하지 못하는 유아기에 리비도가 자기 자신에게만 쏠려 있는 1차적 나르시시즘과 유아기가 지나면서 리비도의 대상이 나 아닌 남에게로 향하지만 어떤 문제에 부딪혀 남을 사랑할 수 없게 됨으로써 다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상태로 돌아오는 2차적 나르시시즘으로 분류한다.

### 2. 나르시스와 나르시시즘

나르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강의 신 케피소스와 요정 레이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사람이다.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에 따르면, 레이리오페는 나르시스를 낳자 테베의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에게 아들이 오래 살 것인지 묻었는데, 테이레시아스는 “자기 자신을 모르면 오래 살 것”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나르시스의 아름다움 모습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랑의 구애를 하지만, 나르시스는 이들의 구애를 모두 거절한다. 구애의 거절로 상처받은 이들이 늘어가자, 나르시스 역시 같

은 상처를 받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간다.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이러한 목소리를 듣고 나르시스로 하여금 자기애에 빠지게 한다. 이로 인해 어느 날 사냥을 하던 나르시스는 목이 말라 샘으로 다가갔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하게 되어 샘물에 빠져 죽게 된다. 나르시스가 죽은 자리에는 시신 대신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데, 사람들은 이 꽃을 이름을 따서 나르시스(수선화)라고 부르게 된다. 나르시시즘은 이러한 나르시스 신화에서 유래하여,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 3. 유형화



<수선화>

신화적 의미와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에서도 나르시시즘은 자기애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기애는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된다. 자기애를 어떻게 나타내는가에 따라 모티프로서 나르시시즘의 문학적 형상화는 달라진다.

1) 자아상실 혹은 자아실현의 잘못된 과정  
관심의 대상이 자기 자신 뿐인 인간은 지나친 자기애로 인해 자아를 상실하게 된다.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특정한 인물에만 집착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자기애는 자아실현의 잘못된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주인공은 점점 더 주변세계와 단절되고 고립된다. 예술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에서는 특히 창조행위와의 집착과 몰두로 자기애가 표현된다. 예술가를 소재로 하고 있는 토마스 만의 작품 『토니오 크뢰거』에서 주인공은 예술창작에만 몰두하다 주변세계와 소통하지 못한다.

#### 2) 가상에 대한 집착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는 행위는 존재의 가상에 대한 집착이다. 실재의 '나'가 아닌 거울 속에 비친 가상의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현실과 가상에 대한 갈등과 관계있다. 이를 테마로 하는 작품에서는 인간 존재의 실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나르시스'는 이러한 유형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 3) 정체성 찾기

현대 문학에서 자기애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 혹은 특정한 사건을 통한 자기 존재의 시험과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근친상간적인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며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드러나기도 한다. 자기애가 자기에 대한 사랑인

동시에 타자에 대한 사랑의 욕망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것임을 생각해 보면, 자기애는 결국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전제로 한 현상이다.

#### 4) 인간관계의 상실 혹은 회복

자기애는 자아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과의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생성하는데 실패하게 한다. 자기애를 과시하는 인물은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자신과만 연결시키며, 독백 형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숨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기애는 일정한 사건을 통해, 혹은 조력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 4. 서사구조

|    | 내용                   |
|----|----------------------|
| 원인 | 부모의 편애 혹은 과도한 관심과 사랑 |
|    |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사랑 |
|    | 가상에 대한 집착            |
|    | 주변세계와의 부조화           |
|    | 소외                   |
| 과정 | 타인의 사랑 혹은 관심 거절      |
|    | 주변 환경에서의 소외, 소통의 실패  |
|    | 창조적 행위(아름다움)에 대한 몰두  |
|    | 정체성의 혼란              |
| 결과 | 고립, 고독               |
|    | 죽음                   |
|    | 인간관계 상실 혹은 회복        |
|    | 예술 작품의 완성 혹은 실패      |

### 5.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나르시스 Narziss』\*

|    |                                  |
|----|----------------------------------|
| 작가 | 릴케 Rainer Maris Rilke(1875-1926) |
| 장르 | 시                                |

\* 이동영(역): 나르시스. 실린 곳: 나르시스, 그리고 나르시시즘 - 릴케 시 분석, 책읽는사람들, 2001.

|      |                                |
|------|--------------------------------|
| 생성년도 | 1913년                          |
| 등장인물 | -나르시스: 자신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다 죽음에 이른다. |

### 5.1. 내용 요약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나르시스>

강의 신 케피소스와 요정 레이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난 나르시스는 아름다운 용모 때문에 숲한 처녀들과 요정들에게 구애를 받는데, 이들의 사랑을 모두 거절한다. 숲과 샘의 요정인 에코도 나르시스를 사랑하는데, 헤라로부터 귀로 들은 마지막 음절만 되풀이하고 말을 할 수 없는 형벌을 받아 마음을 전할 수가 없다. 결국 에코는 나르시스로부터 사랑을 거절당하자 실의에 잠겨 여위어 가다가 형체는 사라지고 메아리만 남게 된다. 나르시스에게 사랑을

거절당한 에코가 나르시스 역시 똑같은 사랑의 고통을 겪게 해 달라고 빌고,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는 이를 들어 준다. 이로 인해 사냥을 하던 나르시스는 목이 말라 샘으로 다가가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하게 되어 샘물에 빠져 죽는다.

### 5.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 유형: 자아상실 혹은 자아실현의 잘못된 과정
- 서사구조: 신화적 인물 나르시스가 운명적인 자기사랑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잃는다.

|    |                      |
|----|----------------------|
| 원인 |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사랑 |
| 과정 | 타인의 사랑 혹은 관심 거절      |
| 결과 | 자살, 죽음               |

## 6. 작품 목록

릴케 Rainer Maria Rilke: 『나르시스 Narziss』 (1913)

토마스 만 Thomas Mann 『토니오 크뢰거 Tonio Kröger』 (1914)

트라클 Georg Trakl: 『작은 연주회 Kleines Konzert』 (1917)

## 7. 연계 모티프

가상, 고독, 근친상간, 도취, 소외, 소통, 예술가, 자살, 죽음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생성의 예>

| 모티프 연계 | 고독 + 나르시시즘 + 예술가 + 소외  |
|--------|--|
| 스토리    |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고독한 삶을 이어가는 주인공은 예술의 세계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 창작의 고독을 즐기며 점점 자신의 세계에만 빠져 들어가는 예술가는 결국 자신 외에는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못하고 현실세계에서 소외된다. |